

# 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 장학금 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 문의

전화 02-774-9703(장학위원회)

YWCA 한국YWCA연합회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역협력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 한국 YWCA

2019년 6월호  
June  
Vol.561

### 탈핵

고준위핵폐기물 현황과 과제

### 성평등

'장학산'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가해자는 어디에

### 이달의 현장

제3차 길 위의 평화포럼

### 기획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YWCA 운동과제

### 이달의 포커스

87년 민주항쟁과 그 이후



#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민주화 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Y는 더불어 사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자 365일(1987. 6. 1 ~ 1988. 5. 31)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기도회를 가지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운동을 펼쳐갔다.

세계평화수립이 인류 최대의 소명이자 우리의 역할임을 믿고 YWCA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미스바에서의 집회와도 같이(사무엘상 7장3절~12절 참조) 하나님이 우리를 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1987년 YWCA 365일 철야기도였다.

1979년 10·26과 12·12 발생으로 18년에 걸친 독재정권이 막을 내리는 듯 했으나, 1980년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정부 이후 부정부패 현상들이 계속되고, '4·13 호헌조치' 등 정권장악과 체제정비를 위한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학원소요사태로 연결되는 암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전경들과 대학생의 팽팽한 접전이 끊이지 않았다.

YWCA는 독재정권의 탄압이 악랄해지는 이런 사회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1987년 6월 1일부터 1988년 5월 31일까지 전국YWCA가 동시에 '365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속철야기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 사람의 인도자와 회원그룹이 팀이 되어 매일 1회씩 참가, 연합회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 회원을 모집한 후 한 사람이 한 달에 하루씩 연 12회에 걸쳐 기도회에 참석하여 365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 기도회는 33명 인도자의 인도 아래 297명의 기도동지들의 기도로 이루어졌는데, 혼란한 사회에 평화를 주실 것과 교회와 YWCA에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연합회는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전국 YWCA 회원들에게 기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학원에 있어야 할 우리의 아들딸들이, 최루탄 가스 속에서 쫓고 쫓기며 소리 없는 통곡을 하던 며칠을 보내며, YWCA 회원인 우리 여성들은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YWCA는 6월 1일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365일 연속 철야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365일 철야기도회에 회원 모두가 동참하여 오늘의 고통이 보람으로 변하여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현실을 보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기도회 마지막 날인 1988년 5월 31일에는 연합회 강당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나라를 위한 철야기도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출처 한국YWCA 80년사

## 2019.6 한국YWCA



### 표지이야기

6월 22일(토) 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해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정식을 열었다. 동부지역 중심 13개 회원Y와 연합회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75명이 참여해 "답이 없는 해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해발전을 멈추는 것"임을 외쳤다.

### 2019년 7·8월 주요일정

#### 7월 1일~2일

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8년이상)

#### 7월 4일

제1차 YWCA미래가치포럼

#### 7월 18일

제4차 길 위의 평화포럼

#### 7월 27일~8월 1일

2019 Y-틴 드림쉽

#### 8월 7일~11일

Y-틴 히로시마 평화순례

#### 8월 20일~22일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제55권 제5호 통권 561호

2019년 6월 26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중,라 00001)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 · 김은주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한나

편집 배정미 · 이주영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 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돌봄노동시장 | 이은영
- 05 **말씀 묵상** 전쟁과 여성 | 이숙진
- 06 **탈핵** 고준위핵폐기물 현황과 과제 | 이현석
- 08 **성평등** '장학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가해자는 어디에 | 김보화
- 10 **청년토크** 지구를 지키는 청년들 | 이지현·차만규·김광식
- 12 **이달의 현장 ①** 제3차 길 위의 평화포럼
- 14 **이달의 현장 ②** 2019 YWCA 돌봄직종담담 실무자 워크숍
- 16 **이달의 현장 ③**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정식
- 18 **이달의 현장 ④**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전국캠페인
- 19 **기획**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한국YWCA 과제 | 박충구
- 24 **이달의 포커스 ①** 87년 민주항쟁과 그 이후 | 김향
- 26 **이달의 포커스 ②** YWCA역사관 '이제'를 만나다 | 차경애
- 2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기생충> | 정덕현
- 30 **연합회 소식**
- 33 **영원한 여성운동가故 이희호 선배님을 추모하며**
- 34 **회원YWCA 소식**

#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돌봄노동시장



**이은영**  
연합회 실행위원·돌봄과살림위원장

요즘 우리사회의 변화속도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4차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변화의 양상은 핀테크, 블록체인, 클라우드서비스 등 도통 알아듣기 힘든 용어를 매일 접하게 하고 소위 트렌드라는 것을 따라잡기란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보와 데이터, 기술이 기존의 산업과 결합한 여러 가지 융합적인 현상의 실체는 '새로운 가치창출'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YWCA운동, 프로그램과 어떻게 관련이 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대다수 회원YWCA는 '돌봄과살림' 브랜드로 가사돌봄, 아이돌봄, 산모돌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YWCA에서는 전화상담을 통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돌봄서비스시장에도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인터파크 등의 기업이 자회사의 형태로 진출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간편하고 신속한 매칭서비스, 돌보미 선택기능,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기업은 고객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사서비스상품을 3

시간에 3만5천원으로 출시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평가가 높은 돌보미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평가가 좋지 않은 돌보미를 선택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품질의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돌봄사업은 급격하게 기업화의 물결에 편입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YWCA로서는 감히 시도하기 어려운 방식의 사업모델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전제로 한 '가사노동자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국회의원들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WCA는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이러한 대기업방식의 사업모델과 나란히 할 수 있으며 그 길에 진입해야만 할까요?

YWCA가 해야 하는 것이 비즈니스로서의 돌봄사업인지, 돌봄을 통한 공동체운동인지 생각해 봐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돌봄에 대한 YWCA의 시각과 가치를 정의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물결의 핵심은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우리 YWCA는 이런 시대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YWCA가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사회와 회원에게 전달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전쟁과 여성 : 말하는 주체와 기억 공동체



**이숙진**  
연합회 Y아카데미위원회 위원·신학자

## 창세기 34장 30~31절 (참고: 사사기 19장~21장)

우리가 통일을 대망한다면 분단 역사를 돌아보아야 하고, 평화를 꿈꾼다면 지난 폭력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조적 폭력이 대물림 되는 사회에서는 평화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거사 관련 단체에서 피해 조사와 증언 채록을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여성 증언자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여성들이 겪은 고통의 경험은 증언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에 등장하는 디나는 세겔에게 성폭력을 당하지만 본문에서 피해 당사자인 디나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디나는 철저히 '말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서사인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서는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지와 무뢰배들에게 우간다하여 죽음에 이르자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으로 정당화하며 보복살육이 발생합니다. 여성을 짓밟은 그 불의한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만 피해 당사자인 여성의 증언은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그 침묵의 카르텔은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의 굴곡진 현대사는 어떠합니까. 한국전쟁 중 여성에 대한 전시강간이나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인에 의한 집단성폭력사건 역시 깊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최근 NGO단체들이 제주 4.3사건 증언을 채록하고 있지만 대개 남성들의 증언입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남성의 증언과 여성의 침묵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1986년 문귀동 경장이 자행한 부천시 성고문사건을 기억합니다. 사건발생 한 달 후 문귀동이 고소당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는데, 더이상 피해자가 아닌 고발자로 우뚝 선 '말하는 주체'는 성범죄피해를 수치로 여기는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새 세상을 열었습니다.

진실 확인 과정에서 국가폭력의 실체가 폭로되고, 공동대처 과정에 재야·정치권·종교계·여성계의 연대는 87년 민주화투쟁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가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통을 경청한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의 미투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사회의 공감적인 듣는 이들이 많아진 것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지만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여성혐오의 문화는 여전히 강고합니다.

우리의 평화통일운동은 일상 속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일상의 성별화된 폭력은 전시에는 합법적으로 장려되기 때문입니다. 여성혐오 문화를 극복하려면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만약 듣는 공동체가 없다면 말하는 주체도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슬퍼하고 저항하는 감수성에서 기억의 공동체는 확장됩니다. YWCA는 여자라서 겪게 된 개인적, 사회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기억의 공동체 형성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0일(화) 광화문광장에서 탈핵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방침 중단을 촉구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사고 안나면 핵발전소는 문제없나?**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 큰 사고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핵발전에 반대하시나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그만큼 큰 사고는 없었다. 누군가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그런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고, 흘러간 이야기 그만하라고 면박을 주는 이도 있었다.

핵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고’를 꼽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해 재앙정도 수준의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만을 갖고 핵발전의 문제점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사고 이외에도 핵발전의 문제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최소 10만년 이상 생태계에서 격리되어야**

그 대표적인 것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이다. 핵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사고 없이 잘 가동된다고 할지라도 핵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다. 핵발전소에서 사용했던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방사선과 열 때문에 최소 10만년 이상 생태계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원자로에서 막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수십 초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방사선이 나온다. 너무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나 기술, 장소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인류가 핵발전을 시작한 지 벌써 60년이 지났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의 어려움**

많은 나라에서 처분장을 운영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달리 고준위핵폐기물은 처분장 건설이 어렵다. 10만년 이상 보관할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10만년 전이면, 인류 역사로 볼 때 구석기 시대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열과 방사능을 견딜 수 있는 보관 용기를 만드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스웨덴의 경우, 구리를 이용해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용기를 만들었으나 오랫동안 녹슬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를 뒤집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인허가가 중단되었다. 지하수가 없는 완전히 밀폐된 땅을 찾기도 쉽지 않다. 네바다 사막

에 있는 미국 유카산 처분장의 경우 현재는 소금사막이지만, 과거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되어 관련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 과거 물이 흘렀다는 말은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 물이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나라는 ‘최종 처분’보다는 ‘중간 저장’으로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방식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기술 발전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현재 기술로 만들어진 중간저장고의 수명은 대략 50년 정도이다. 중간저장고의 수명이 끝나면 바로 옆에 또 다른 중간저장고를 만들어 보관을 이어갈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처분장을 구하기 전까지 잠시 보관한다고 하지만, 50년은 인간의 수명을 고려할 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또한 처분장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속 보관을 이어가 ‘사실상 처분장’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높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가 가동되었던 지역주민들의 경우, ‘왜 우리가 계속 핵발전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대부분 인구가 적고 외곽에 있는 핵발전소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적다. 반면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대도시나 공단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상실감은 매우 크다.


**이해당사자 배제된 재검토위원회, 앞으로가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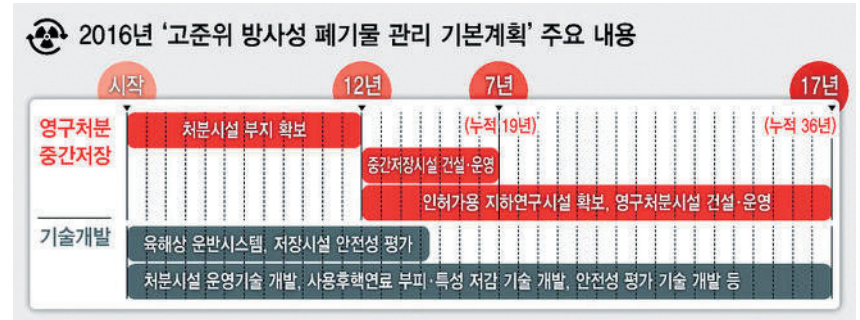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다. 다른 문제와 달리 분명한 해답이 보이기보다는 다양한 방안이 장단점을 가진 모습만 보인다. 무작정 찬성과 반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대목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핵발전소를 40년 이상 사용해온 우리

모든 국민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핵발전을 계속하면서 무책임하게 고준위핵폐기물을 생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그럼 이미 만들어진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기구이다. 하지만 이 기구에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같은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참여하지 못했다.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무색무취’의 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공론화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이들을 배제한 것이다.

아직 재검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지 않아 향후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방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공론화 결과는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우리 사회의 큰 숙제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뒤 우리 후손들이 2019년을 살았던 우리를 강력히 비판할 것이다. 왜 자신들에게는 골치 아픈 쓰레기만 물려주었냐고 말이다. 



정부가 2016년 만들어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는 배제돼 있어 제대로 된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장학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가해자는 어디에 있는가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6월 4일, 전법무부 차관 김학의에게 성폭력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만을 적용했다. 또한 가수 승리로 인해 촉발된 유명 연예인들의 집단성폭력, 준강간, 성접대, 마약, 불법촬영과 유포에 대한 수사는 그들 YG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고 있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이른바 ‘장학선’(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의 준말)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비즈니스와 정치를 위해, 재미와 놀이를 위해, 여성의 교환과 거래, 그리고 폭력이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이 사건들의 피해자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가해자는 없어 보인다.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 억울함의 정서

‘장학선’ 사건의 가해자(들)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사건들은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서 끝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어느 시점에 그만둘 뿐, 예상컨대 끝은 없을지도 모른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고 장자연의 기획사 사장과 기업인, 정치인의 유착, 김학의와 전 박근혜 정부의 외압 등은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문란한’ 몇몇 사람들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공고히 뒷받침하는 ‘남성연대’의 순환구조일 뿐이다. 이들에게 여성폭력 문제는 ‘성추문’이거나 ‘음모’일 뿐, 그것 자체로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되지도 않아 보인다. 그래서 경·검찰, 사법부, 기업인, 정치인, 유명 연예인의 사건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

문에 폭로는 폭로로, 서로 간에 배신과 비방으로 이어지며, 이때 각각의 ‘가해자 정체성’은 희석되기 때문에 이들의 주된 정서는 반성보다 억울함으로 점철된다. 그래서 김학의는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승리는 자숙보다 헬스장을 택할 수 있으며, 고 장자연의 증인 윤지오 씨는 응원대신 탄압을 받고, 제 2의 버닝썬이라 불리는 ‘레이블’은 버젓이 운영될 수 있다. 이들의 억울함은 사회적으로 지지되어왔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는 것 ‘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우군은 ‘법’이다.

## 가해자를 비호하라

검찰은 윤중천 씨의 성폭력은 인정했으나, 김학의에 대한 성폭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이 아닌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가해자/남성연대는 어떻게 피해자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이어진다. 가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취약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방식(폭행·협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의 성폭력을 할 필요가 없다.

전국 4개 상담소의 1년간 상담일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전체 3,484회(638건)의 상담일지 중에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은 80.9%(516건)에 이르렀다. 가해자들은 위력을 이용한 피해자의 ‘자발적 무기력’ 상태와 ‘경제적 취약성’을 활용하거나,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를 ‘심리적 취약’ 상태로 만든 후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다. 이때 폭행·협박 없이 강간에 성공한 남성/가해자의 책임은 최소화되고, 자발적 참여에 대한 자기비난이 내면화된 여성/피해자의 책임



여성단체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은폐를 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은 강해지면서 술과 약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침묵의 구조가 탄생한다<sup>1)</sup>. 성폭력 신화들로 무장된 통념들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고, 이때 성폭력 피해는 폭행·협박의 증거를 요구하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편협하게 해석된다.

## 불법촬영과 남성중심적 성문화


승리의 단톡방, 정준영을 필두로 한 유명 남성연예인들의 집단성폭력, 불법촬영과 유포의 현상은 이들의 ‘놀이’가 왜곡된 남성성을 전제로 함을 알게 한다. 이 놀이의 승자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를 중심으로 관계가 구성된다. 촬영물은 그들에게 ‘전리품’이자, 만에 하나 발각될 경우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려 할 기자들조차 단톡방에서 동영상 돌려보고<sup>2)</sup>, 인터넷에는 촬영물 원본을 구하거나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보험’은 더욱 단단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진짜 현실과 가상의 경계, 가해자와 비가해자의 경계는 느슨해지고, 그 사이를 무단점거한 성범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거대한 남성중심적 성문화는 ‘장학선’ 사건을 유지해 온 배경이자 전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나는 권력이 없고 그저 놀이였을 뿐이고, ‘가짜 미투’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권은 남성의 편도

공정하지도 않기에 남성도 피해를 입었다”고 외친다. 이러한 ‘청년 남성들의 피해자 담론’은<sup>3)</sup> 신자유주의 체계 하에서 억압의 교차성을 단순화하고, 탈젠더화해서 개인화하기 위한 부단한 시도이다.

## 여성/피해자의 ‘취약성’은 만들어진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남성연대’는 온라인에서, 게임에서, 각종 미디어에서 여성을 착취하여 공고한 유착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여성은 취약한 존재로 고정되어왔다. 모든 인간은 어떤 부분에 취약하다. 그러나 그 취약성은 극도로 성별화되어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성착취카르텔, 성접대카르텔, 웹하드카르텔, 불법촬영유포집단카르텔 등은 ‘한국사회 남성연대’의 다른 이름이고, ‘장학선’ 사건의 구조적인 가해자들이다. 그런 면에서 가해자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들의 유착이 유착상태로 고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남성연대란 일시적일 뿐 강고하지 못하고, 배신과 음모를 통해 간신히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들이 가진 것이 과거의 ‘권력’이라면, 그때의 권력은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푸코의 말대로 ‘행사’되어 온 것이고,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권력이다. 더 왼쪽으로, 더 아래로, 더 바깥쪽으로 권력을 재사유하려는 노력이 함께 될 때, 여성/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는 그 수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 김보화·허민숙·김미순·장주리(2018). 『성폭력피해 상담일지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 2019년 5월 15일자, 노컷뉴스. “기자들 음란단톡방, 왜 ‘문학방’이라 불렀나?”.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150882>  
3) 김수아(2018a).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의 미투 운동에 관한 담론 분석”. 『여성학논집』 제35권 2호, 3-35쪽, 2019년 4월 15일자. <시사 IN>,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4월 22일자. [20대 남자 현상] ‘반페미니즘’ 전사들의 탄생’ 기사 참고. <https://www.sisain.co.kr/>

# 지구를 지키는 청년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대학·청년Y는 개인의 일상과 지역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다. 우리의 활동을 청년토크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지현

창원YWCA 회원

나는 2017년 동부지역과 창원YWCA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문제에 대해 운동을 하게 됐다. 기후변화 관련 활동으로 EM비누 만들기, 녹조현상 캠페인, 일회용 줄이기 캠페인, 재활용품 만들기 등에 참여했다. 강정보(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낙동강의 보로서 4대강 정비 사업 과정에서 설치됨)에서 시민들에게 녹조를 의미하는 '녹차라떼'를 나눠주며 녹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



2018년에도 기후변화를 주제로 환경운동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기후변화라고 하면 지구온난화만 떠올랐기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관련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며 우리의 노력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작은 일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후 대중교통 및 계단 이용, 텀블러, 장바구니 등을 사용했다. 현재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과 비닐봉지 유상판매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환경을 지키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나

2017년 7월 대구 강정보일대에서 낙동강 녹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녹조를 연상시키는 녹차라떼 시음행사 장면

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효과 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기후변화를 막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 작은 실천이 기후변화 막는다

차민규

거제YWCA 회원

YWCA 운동 중 나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바로 환경운동이다. 2018년 동부지역회장을 하면서 '기

후변화'라는 주제로 활동을 했고, '그린보트'에서 경험했던 캠페인과 교육, 탈핵운동을 접하면서 내 일상에



2018년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방문해서 천연비누도 만들어 보았다.

작은 변화가 왔다. 지난 1년간의 환경운동은 나를 '환경지킴이'로 만들어주었다. 지금 나는 외출 시 에코백, 텀블러와 항상 함께한다.

작년 동부지역은 기후변화를 주제로 활동했다. 관련 특강을 듣고,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방문하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역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지금까지 쓰레기라고만 생각했던 스펀지, 딸기잼 병, 우유곽 등으로 카드지갑과 캔들을 만든 경험은 매우 기억에 남는다.

나의 작은 실천이 멀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도 작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기후변화가 무언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환경지킴이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서로 격려할 때 환경보호 실천 어렵지 않다

김광식

청주YWCA 간사



유튜브에 공개한 2018년 그린보트 '플라스틱 디톡스' 장면. 왼쪽 차민규 회원, 오른쪽 김광식 간사

코에 빨대가 끼어 고통 받는 거북이, 북극의 빙하가 녹아 삶의 근거지를 잃어가는 북극곰. 이러한 상황을 SNS나 언론을 통해 접할 때면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기후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텀블러나 장바구니, 개인 수저 등을 들고 다닌다. 그러나 확실히 불편하다. 특히 더 불편한 것은 유난떨지 말라는 듯한 주변의 시선이다.

지난해 8월 '그린보트'에 승선했을 때 '플라스틱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일주일간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에코백, 다회용 실리콘 용기, 텀블러, 대나무 칫솔, 스테인레스 젓가락 등을 매일 꼼꼼히 챙기며 사용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불편했지만 참여한 친구들과 서로 챙겨주면서 즐겁게 생활하다보니 어느새 그 불편함이 즐거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처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실천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대기업 등의 정책적인 큰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한명 한명이 일상속의 작은 불편함을 이겨내며 함께 실천하는 것, 그 실천을 즐거움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안이 아닌 응원으로 북돋아 주는 것을 나와 내 가족, 친구들 모두가 함께 한다면 분명 기후변화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는 큰 발자국이 될 것이다. ♡

# 북한청년(8090세대)의 생활과 의식

2019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태백편'을 준비하는 제3차 길 위의 평화포럼이 6월 20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박영순 위원(평화통일위원회, 연합회 실행위원)이 진행을 맡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연합회 실행위원)이 '북한청년(8090세대)의 생활과 의식'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은주 소장은 2014년부터 매년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구술로 본 북한여성의 삶> 저서를 펴내고 있다. 이날 강의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 편집실



김은주 소장이 '북한청년의 생활과 의식'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전후시기에 태어났거나 유년기를 보냈던 이들을 일명 장마당 세대 혹은 8090세대라고 부른다. 2017년, 주로 평양과 남포, 회령 등 대도시에 거주했던 장마당 세대 탈북남성과 탈북여성 각각 5명씩을 인터뷰하여, 김정은 시대의 동반자로 성장하게 될 도시에 거주하는 장마당 세대의 생활과 가치관을 알아보았다.

평양은 특별한 곳이다. 북한의 수도여서이기도 하지만 살고 싶다고 누구나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아직도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지방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우연한 기회에 엿본 지방 사람들의 생활에 놀라워했다.

남녀역할에서 성별 불평등이 미덕으로 둔갑해 있었다. 외적으로 8090세대 여성들은 앞선 세대 여성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가족 내에서의 발언권도 높아졌으며,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으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북한판' 성별 분업으로 억압받고 있었다.

*“여자는 나가서 돈 벌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는 세뇌가 돼서 이게 여자의 삶인가 보다 하고 싶죠”*

여성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장사를 해야 하니 중학교 이후부터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성별 불평등이 남녀 간의 교육 불평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남자애들은 대부분 중학교까지는 가는데, 여자애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학교에 갈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엄마 아빠 도와서 집안 살림하죠 여자애들은.”*

8090세대의 꿈을 물어보았다.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그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닮은 꿈을 꾸고 있었다. 경제적 성취가 부족한 전문직보다는 권력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8090세대들

의 미래에 여성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여성은 자신의 꿈을 일구기보다는 가족생계부양자로서의 자리로 더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자주성을 상징하는 인생철학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라는 주체사상의 메시지는 국가적 모순에 대한 저항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북한인민대상 교양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었다.

과거로의 회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단호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배급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시장 없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에 의한 생산이 아니라 개인의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여 시장에 팔기 위한 생산을 하고 있다.

시장과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그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이의 어디쯤에 혼란스럽게 서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시장은 권력에 기생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배급제가 와해된 상황에서 권력층은 시장에 기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기형적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생존을 위해 물물교환으로 시작되었던 시장이 이제 북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뇌물은 세금이 없는 나라 북한에서 일종의 세금과도 같다는 인식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뇌물을 받는 자도, 주는 자도 모두 북한체제의 특성과 취약성에서 야기된 불가피한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시장 활동의 범죄화에 의한 벌금 형태의 뇌물징수는 생산활동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기검열 과정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의 생산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도시의 8090세대에게 핵무기는 자랑이고 자긍심의 상징이었다. 그들에게 핵무기는 북한을 미국의 위협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성별이나 학력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있었다.


북한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였다. 그래서 남한사회나



현대화된 2018년 평양의 모습.

서방세계의 언론에서 북한을 비정상국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독재국가이기는 하지만 비정상국가는 아니라고 항변한다. 북한의 대주민 상호감시시스템은 외부세계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이며 완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완벽한 감시시스템으로 북한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 내부에서의 변화는 불가능하며 오직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김정은에 의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8090세대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평양과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남녀노소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인 김정일과의 차별화된 정치 행보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화정치 혹은 미담 정치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믿음직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 사회의 청년은 그 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들의 변화는 그들의 부모세대가 살았던 그 때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평양에 사는 8090세대들은 시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인생 도전들을 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으로 진입하고자 욕망하는 이들도 북한의 변화를 읽고 있다. 더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모습에서 평양에 사는 8090세대의 꿈과 욕망이 보인다. 

# 가사도우미는 돌봄노동 노동자다



2019년 YWCA 돌봄직종담당 실무자 워크숍 단체사진

편집실

2019년 YWCA 돌봄직종담당 실무자 워크숍이 6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첫째 날 '변화하는 돌봄노동시장'을 주제로 세 개의 강의를 진행하고, 둘째 날에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캠페인에 참여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YWCA 돌봄직종담당 실무자 총 30명이 참석했다.

'돌봄 노동시장의 변화와 한국YWCA 과제'를 주제로 이은영 위원장(연합회 돌봄과살림위원회)이 첫 번째 강의를 열었다. 돌봄 노동 영역에서의 법적, 제도적 체계 마련보다 시장의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가사서비스 시장은 최근 O2O(Online to Offline)업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가사돌봄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 7조 5천억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비영리단체나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중개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개인별 서비스 맞춤화가 가능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많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

화 속에서 YWCA는 돌봄 노동이 공적 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 양질의 일자리로서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권 확립의 원칙', 자격관리, 직업훈련, 서비스 표준화, 보상의 체계화를 포함하는 '공식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 시장과 돌봄노동'을 주제로 윤지연 기자(월간지 워커스)가 강의를 했다. 공유경제, 플랫폼 산업이 가사노동 시장을 포섭하면서 가사노동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재편됐으나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도 적용받지 못하

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윤지연 기자가 홈클리닝 'O2O'업체를 통해 가사노동자에 도전한 경험을 나누면서, 휴게시간과 휴게장소 전무, 사회보험 사각지대, 일상적 감시체계 등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조연행 부장(서울YW돌봄과살림)이 '돌봄 서비스 운영 사례'를 주제로 라이프스타일, 소비트렌드, 국내 돌봄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과 'YWCA다운 돌봄서비스'가 되기 위한 방안 등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12일(수) 국회 앞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는 50만 명으로 추산되나,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6년째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조항'으로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 소감문

### '운동과 사업' 사이에서, YWCA다운 해법은?

박미숙

천안YWCA 팀장

2년 전 돌봄직종담당 실무자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만 해도 가사노동시장 변화가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했고 가사노동조합을 만든 성남, 부천YWCA 사례를 공유하며, 천안YWCA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올해 워크숍에서의 화두는 플랫폼 노동시장이다. 단어도 생소하여 교육이 끝난 후 몇 번이고 검색을 해가며 며칠을 이 단어와 씨름했다. 수많은 가사노동자들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YWCA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워크숍 참가자들은 '운동과 사업'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토로했다.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6월 12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제8회 국제가사노동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YWCA 가사노동자에 대한 워크숍 참가자들의 고민은 이어졌다. 플랫폼 노동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 속에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플랫폼 업체의 개입은 임금 등 노동조건 악화로 직결된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 천안YWCA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전국 52개 YWCA가 머리를 맞대고 YWCA다운 해법을 찾기를 소망한다.

# 10만년 위험, 답이 없는 핵폐기물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정식 가져

편집실

우리나라가 핵발전소를 가동한 지 40여 년째, 전국 5개 핵발전소 지역과 대전 원자력연구원에는 약 1만 6,50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 지금처럼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다면 해마다 약 700톤이 추가로 발생한다. 고준위핵폐기물 1m 앞에 17초만 서 있어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핵폐기물은 봉인해 격리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관리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높은 방사선과 열을 10만 년 이상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과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소 가동 국가 38개국 중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핵발전소 가동의 결과 고준위핵폐기물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관할 기술이나 장소도 없이 고준위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하는 일은 현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겐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법률로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주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고'를 건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6월 22일(토) 오후 2시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정식이 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출정식에는 우리 단체를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녹색당 등 전국 20여 개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탈핵시민행동(준)이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10만인 행동 출정식에는 동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연합회를

비롯한 13개 회원YWCA(거제, 경주, 김해, 대구, 대전, 부산, 성남, 안양, 울산, 진주, 진해, 충주, 포항Y)에서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75명이 참여하였으며, 부산YWCA 홍순옥 회장이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범 선언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10만인 행동 출범 선언문에서 "핵폐기물을 과대 배출하는 발전소부터 우선 폐쇄를 요구한다. 조기 폐쇄만이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정식에 참가한 75명의 YWCA 출정자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회피하지도,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겐 핵폐기물 문제를 떠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2시부터 40분간 10만인 행동 출정식에 참여한 후 천년고도 경주 시내 경주역에서 봉황대를 거쳐 경주역으로 돌아오는 구간을 행진했으며, 다시 돌아온 경주역 광장에서는 만인소를 펼치며 탈핵 세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은 6월 22일 경주에서 열린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즉 현 세대에 필요한 전기를 얻고자 10만 년 이상 방사선과 열이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기 '핵발전소 폐쇄' 밖에는 답이 없다는 대국민 캠페인과 온라인 서명 작업, 대중 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적극 대처하게 된다. 



# 동일임금의 날 제정으로 #페이미투에 응답하자!

한국YWCA는 2014년부터 매년 5월 넷째주 고용평등주년을 맞아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전국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5월 27일(월)부터 6월 5일(화)까지 12개 회원YWCA(남양주, 남원, 논산, 마산, 사천, 원주, 의정부, 제천, 진주, 진해, 청주, 충주)가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5월<한국YWCA>에 이어 12개 회원YWCA의 사진을 실는다.



남양주YWCA 6.5(화) 남양주YWCA



남원YWCA 5.31(금) 남원시의회 앞



논산YWCA 5.28(화) 논산YWCA



마산YWCA 5.29(수) 경남은행 본점



사천YWCA 5.29(수) 삼천포새시장 일대



원주YWCA 5.27(월) 원주 중앙시장, 농협



의정부YWCA 5.31(금) 의정부 홈플러스 광장



제천YWCA 5.28(화)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입구



진주YWCA 5.31(금) 칠암동 교보생명 앞



진해YWCA 5.29(수) 진해구 종장로 일대



청주YWCA 5.27(월)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충주YWCA 5.28(화) 충주시 롯데마트 앞 광장

#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한국YWCA 과제

## 기독교 생명 윤리학적 관점에서



박흥구  
목사 ·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현재의 역사적 결정

지난 2019년 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불합치: 합치가 7:2로 현행 낙태금지법 조항(형법 269조 및 270조)이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현재의 결정 요지는 낙태를 금지하는 기존의 법이 태아를 보호하는 법으로서도 실효성이 없고, 임모의 건강과 재생산성을 지켜내는 중차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소홀했으며, 그 결과 여성의 인격권에 속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인 국회는 새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현재의 결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낙태 금지법 존속을 주장하던 이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것의 폐지를 주장하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찬반의 극명한 태도가 부딪히면서 갈등을 초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은 기독교 윤리학적 속고와 판단을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립된 논쟁이 기독교 공동체와 기관 안에 무비판적으로 유입, 수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글에서 나는 이런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결정을 기독교 생명 윤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 여성들은 향후 어떤 실천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려 한다.

###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결정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낙태

와 관련한 논쟁은 서구사회 각 나라에서 이미 1950년대를 지나면서 무수히 제기되었고, 다양한 논쟁을 거쳐 2019년 현재 OECD 36개국 중 30개국이 낙태죄를 철폐하고 낙태의 제한적 합법화라는 방향으로 이 논쟁을 매듭지어 왔기 때문이다. 이미 낙태를 합법화한 사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그동안 여성이 낙태를 할 경우 최장 14년까지 징역형을 가하던 아일랜드에서조차 지난 2018년 국민투표에서 66.4:33.4로 낙태법을 폐지했다. 아일랜드는 국민 88%가 가톨릭 교도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존속시켜왔던 나라다.

나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모두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생명권 옹호론자들이 윤리적 판단의 중심을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두고 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주장하는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모의 생존권이 갈등하는 상황일 경우 임모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이 갈린다.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그룹이 주장하는 바는 모두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기존의 낙태금지법의 보호를 받던 생명권 옹호론자들의 정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낙태죄 폐지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생명권 옹호론자들이 ‘구체적인 현실’을 살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은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에 적절

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교리적으로 답을 얻는 경우가 많다. 비기독교적 세계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교리적이거나 교조적 판단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생명권 옹호론자들은 임모의 태중에 있는 태아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선(善)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는 이들은 그런 선의지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임모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그의 가족의 삶'을 지키는 데 더 큰 선(善)의지를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태아의 생명도 지키고, 임모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그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최상의 상황이 될 것이다. 기독교는 사실 이런 최상의 상태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태아와 임모의 관계가 최상의 상태가 아닌, 비참한 갈등 상황에 빠진 현실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한 원칙주의자가 되기 쉽다.

**최스러운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모색함**

나는 낙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죄스러운 인간의 현실을 생각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년에 약 2억 2천만 명이 임신한다. 그 중에서 1/4정도인 5천 5백만 임모가 낙태로 임신 상태를 중단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든지 안 하든지 매년 5천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낙태를 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세계다. 생각할수록 비참한 현실이다. 그 중에서 약 60%의 여성들은 국가 사회가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안전한 검사, 시술, 시술 후 돌봄을 받는다. 그러나 나머지 40%에 이르는 약 2,200만 명의 여성들은 낙태를 불법화한 사회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다. 뉴욕 굿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년 약 7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불법 낙태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생명권 옹호자들은 모르는 척 한다.

특히 일부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이런 엄청난 낙태 현실을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의 결과라고 비난하며 낙태죄 존속을 주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판단은 틀린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의 부도덕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5세부터 19세까지의 여성들은 남성의 폭력적인 성행위의 결과로 임신하는 경우가 많고, 20세 이후 44세까지 여성 중 기혼 여성은 대부분 피임에 실패했기 때문에 임신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서 낙태를 하는 여성은 미혼여성보다 기혼 여성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여러 가지 피임수단이 있지만 대부분의 방법은 완전하지 않아서 최소 8%에서 최대 28%까지 피임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성에 대한 무지와 성폭행, 혹은 성애의 오용의 결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임신은 피임의 실패로 일어나는 것이다.

놀라운 수의 태아가 온전한 인간으로 출생하지 못하고 중도에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다. 나는 이런 현실의 비참함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혹은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다. 오히려 낙태 금지법을 존속시키고 있는 나라에서 더 많은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낙태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1,000명 중 37명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하고 있는 반면, 허용국에서는 1,000명 중 34명이 '안전한 낙태'를 하고 있다.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낙태 빈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의 건강도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낙태법을 철폐하고 안전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보다 옳은 판단이며 여성의 몸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UN, 세계보건기구(WHO)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왜 국제 인권 기관들이 낙태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는가? 그 이유는 태아를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생명 윤리적 당위성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와 교회의 입장**

현재의 결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현재의 결정이 UN, WHO, 혹은 Amnesty International 등과 같은

기관이 제시한 국제적인 수준의 판단과 권고를 수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와 가까운 세계 여러 나라의 입장을 참고해 보자.

먼저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3년 기존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12주 이내에서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했다. 영국은 1967년 낙태법을 중죄로 처벌하던 법을 폐지하고 24주 이내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1974년에 12주 이내에서 공인된 상담가와 최소 시술 3일전까지 상담을 거치는 조건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했고, 1942년 낙태한 의사에게 사형까지 언도했던 역사를 가진 프랑스는 1974년 여성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la situation de détresse)에서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2001년에는 그 허용기간을 12주로 연장하였고, 2013년부터는 낙태를 하는 임모의 병원비 100%를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가까운 일본은 구형법은 물론 신형법(1907년)에서 모두 낙태를 금지했으나, 1948년부터 22주 이내에는 임모의 '신체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연이어 낙태죄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교회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이를 위해 우리가 선례로 여길만한 영국과 독일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영국은 1983년에 "임신상태가 임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제거는 정당화될 수 있고, 임모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Church of England General Synod, 1983)는 입장을 표명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상황을 인정했다. 다만 1993년에는 1967년 임신중절법이 통과된 이후 시술회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독일 개신교 연합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는 낙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1972년, 1973년, 1976년, 1980년에 네 차례나 냈다. 그 결과 두 가지 논제로 요약되

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태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원칙적 규범을 확인하고, 예외적인 긴급 상황(Notfall)의 경우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판단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정당하다(justificable)는 입장을 취했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유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류하는 동시에 교회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낙태죄를 폐지한 국가들은 태아보다 임모의 건강과 생존 우선의 원칙을 법제화했고, 영국교회와 독일교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갈등 상황이 일어날 경우 "최소의 악"(lesser evil)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비참한 상황에서 보다는 선을 선택하는 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독일교회는 임부가 비록 태아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위배되는 결정을 할지라도 임부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교회의 돌봄과 보호의 대상임을 명백히 했다. 임신한 임모가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임모만이 아니라 임모를 임신시킨 남성, 그리고 여성의 몸을 출산 도구로 타자화해 온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체계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YWCA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기독교 여성운동의 한 주체로서 YWCA는 오늘날의 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기독교 윤리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찬성론자이든 반대론자이든 태아보호, 임모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 중 어느 한 가지를 배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현재가 낙태법 폐지가 헌법 정신에 맞다는 결정을 한 법리적 구조는 태아의 생명권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행법이 여성의 인격권과 그에 따른 자기 결정권을 외면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YWCA가 여성운동의 한 주체로서 현재의 결정에 동의의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YWCA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공간을 확장

할 책무를 동시에 짊어져야 한다. 생명공간(Lebensraum)이란 태아와 임모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나는 독일교회가 낙태와 관련하여 기독교인을 교육하는 교재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 글을 마치려 한다.

독일교회는 불가피한 낙태를 승인하면서도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기독교인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태아에 앞서 임모의 건강과 임모

의 가족의 생존을 우선 가치로 보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편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긴급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일교회는 이 불가피성을 극소화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노력 중에는 1) 태아의 생명권을 성서적으로 인정하고, 2) 교회 멤버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3) 갈등 상황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가질 기회를 마련해주며, 4) 교회는 태아의 생명권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고 지킬 수 있는 의식을 확산하고, 5) 임모가 출산을 하여도 위협받지 않는 사회 경제적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6) 여러 가지 지원체계에도 불구하고 임모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태아를 낙태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원한다. 독일교회는 이러한 내용을 종교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교회는 인공유산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연구결과물을 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이 주제를 신앙교육의 과제로 삼아가르치는 교회도 없다.


**마치는 말**

임모와 태아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임신은 축복이며 하나님의 생명 창조 의 파트너가 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죄스러운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인 성(sexuality)



연합회는 6월 18일(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국YWCA과제>포럼을 개최했다.

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1년에 전 세계에서 5천만 건 이상의 낙태를 해야 하는 죄스러운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태가 연간 5만여 건뿐이라는 정부의 보고서와는 달리 불법 시술을 포함하면 연간 약 35만여 건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326,9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으니, 태어나는 아기보다 중절되는 태아의 수가 더 많은 셈이다. 이런 현상은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수치다. 낙태금지법이 사라지면 낙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이런 우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무수한 낙태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기독교 여성들은 먼저 위험과 곤경에 빠진 여성들을 구제하는 정책에 참여하면서도 낙태로 이어지는 원치 않는 임신이 일어나는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라는 곤경으로 여성을 몰아넣는 모든 폭력 구조에 대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극복 대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교회는 2000년 “교회의 논제로서 여성을 향한 폭력”(Gewalt gegen Frauen als Thema der Kirche, 2000) 구조를 분석한 백서를 출간했다. 이 백서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와 법과 신앙 구조는 간혹 전통의 이름으로, 혹은 신앙의 이름으로 전승되어 여성을 향한 폭력의 제도적 및 정신적 배후였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지적 앞에서 기독교 여성들은 진지한 자기 비판적 사고를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낙태죄' 반대론은 진실한가?



## 반대론자의 주장

- ▶ 수정란부터 인간이다.
- ▶ 낙태는 살인이다.
- ▶ 태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이다.
- ▶ 그러므로 낙태는 언제나 악이다.
- ▶ 따라서 모자보건법 예외 조항도 전면 삭제해야 한다. (천주교 주교회의 2000년)



- 1 수정된 수정란은 약 60-70%가 여성의 몸에 착상되지 않고 자연 배출된다.
- 2 수정란이 온전한 인간이므로, 낙태가 살인이라면 살인죄로 처벌받고 있는가? 아니다. 낙태의 죄에 대하여 현행법은 살인죄를 묻지 않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징벌에 그친다.
- 3 수정란은 인간으로 발생되어 갈 수 있는 과정에서 모체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여성의 몸에서 성장 발육하려면 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낙태가 언제나 악'이라는 주장은 실효적인 주장이 아니라, 생명의 초기 단계에서 생명의 신성함을 옹호하려는 선의를 담은 주장이다.

## 반대론자의 주장

- ▶ 낙태죄를 존속시켜야 낙태가 줄어든다.
- ▶ 법의 위하력을 가해야 낙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 ▶ 원치 않는 임신은 성도덕의 타락에서 온다. 낙태죄 폐지는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탈 받으려는 시도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는 낙태를 부추기고, 낙태율을 높이므로 선한 것이 없다.



- 1 현재 낙태죄의 존속 여부가 낙태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다. 오히려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에서 낙태율이 낮다.
- 2 법의 위하력을 가할 경우 법이 강제하는 대상은 임모인 '여성'이다. 국가사회나, 임신하게 한 남성은 징벌 대상에서 면탈되고 있다.
- 3 일부 성도덕의 타락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낙태한 여성의 46.5%가 미혼, 50% 이상이 기혼 여성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임의 실패다. 피임 실패율은 피임방법에 따라 9-28%에 이른다.

# 안락을 향한 전체주의와 내전의 민주주의

김항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991년 5월 25일, ‘공안통치 민생파탄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범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시위도중 대한극장 부근에서 백골단에 의해 또 하나의 젊은 생명 김귀정 열사가 분신으로 접철된 5월의 우울은 또 다시 마음을 내리눌렀다. 그렇게 투쟁과 우울이 뒤섞인 기묘한 시공간을 열사의 시신을 지키라는 지상명령이 지배했다. ‘범국민 대책회의’가 상황을 장악했고 시민과 학생들은 을지로 백병원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그러던 중 5월 31일, 경찰이 과격 시위를 일삼는 ‘폭력시위꾼’을 본격 수사하기로 발표한다.

폭력시위꾼은 오늘날의 감각으로는 ‘홍리스’ 같은 이데올로기에 시위 때마다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던 터였다. 같은 날 ‘범국민 대책회의’는 수사를 빌미로 시신 탈취를 시도하리라 판단하여 폭력시위꾼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들로, 당국의 프락치가 아닐까 의심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차단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범국민 대책회의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기층민중’이라 입장을 뒤집는다. 기묘한 시공간에서 벌어진 자그마한 해프닝이며, 우울에 짓눌린 채 투쟁에 동참한 이들 대부분이 기억조차 못할 하룻밤의 소동이 있었다.

하지만 한 젊은 소설가의 촉수는 이 해프닝을 놓치지 않았다. 요절한 소설가 김소진이 이 하룻밤 소동을 87년 이후 세상의 예시(豫示)로 읽어냈다. 1991년 <문예중앙> 가을호에 게재된 소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주인공은 ‘밥풀때기’들이다. 이 말은 당시 이른바 ‘폭력시위꾼’을 지칭하던 은어인데, ‘범국민 대책회의’와 ‘밥풀때기’ 사이의 말싸움은 이 소설의 주된 소재였다.

밥풀때기들은 자본주의적 질서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최

하층 계급으로 당시 거의 모든 시위현장에서 나타나 지도부의 전략전술을 거부하고 폭력적 시위에 몰두한 이들이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대책회의의 간부를 비아냥거리면서 설전을 벌인다. 그 과정에서 소설가는 대책회의를 리드하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의 속살을 들여다본다. 이들은 모두 밥풀때기들의 대책 없는 과격 행위를 나무라면서 국가기구와 시장제도는 시민들의 정상적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에 이성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마치 지금까지 국가기구와 시장제도가 문제였다기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독재정권만이 문제였다는 듯이, 자신들처럼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이들이 국가기구와 시장제도를 운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그리고 민주화란 시민의 행동윤리와 정상규범으로 질서 잡힌 사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듯이, ‘민주-정상-윤리-시민’으로 이어지는 연쇄에서 밥풀때기들을 열린 민주사회의 ‘적’들로 밀어내려고 한 것이다.

## 87년 민주항쟁은 거대한 폭력을 거부하는 힘

87년 민주항쟁은 분명히 낡은 것의 작동을 정지시킨 힘 자체였다. 도래할 세상의 구체적 형태나 규범적 가치도 중요했지만, 보다 일차적인 것은 더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다는 거부의 의지이자 몸짓이었다. 그런 한에서 87년 민주항쟁의 뿌리는 거부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정착시키고 운용하는 일보다도, 이미 확립되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폭력을 거부하는 힘이야말로 87년의 본령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김소진은 91년의 투쟁과 우울 속에서 그 힘의 소멸을 예감했다.

87년을 이끈 민주세력들은 밥풀때기를 보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눈살을 찌푸린다. 일상의

안락함을 위해 밥풀때기들의 존재와 행위가 시민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무언가로 간주된다. 소설가 김소진이 문제삼는 것은 밥풀때기들이 없는 공간으로 사념되는 시민사회이다. 민주화 세력의 지지를 얻고 뿌리를 내리려는 시민사회가 밥풀때기들 없는 위생적인 공간이라는 사실, 여기서 김소진은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예시(豫示)를 감지한다. 그것은 일본의 사상가 후지타 쇼조(藤田省三)가 말한 ‘안락을 향한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 90년대 이후 민주화는 안락을 향한 전체주의 고통과 혐오의 가능성을 삶에서 추방하라

후지타는 1980년대 일본 사회를 보며 ‘안락을 향한 전체주의’라 명명했다. 그것은 혐오와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물/생명체/사건 등을 아무리 미세할지라도 회피하고 말살하려는 정신의 성향을 말한다. 즉 혐오와 고통의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일종의 멸균 공간을 꿈꾸는 욕망인 셈이다. 그는 이런 정신적 성향과 욕망이 화학적 해충 박멸에서 특정 인종의 말살까지 아우르는 전체주의의 전형적 심성임을 지적하면서 1980년대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소진이 밥풀때기를 나무라는 민주화세력 속에 감지한 성향이 바로 이것이다. 불행하게도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자유화의 이름 아래 안락을 향한 전체주의가 승승장구했다.

주택 200만호 공급으로 이제 시민들은 모두 깨끗한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이 될 터였다. 성냥갑이 용기종기 모인 그들만의 성체에는 동질성을 보증 받은 이들 외에 누구도 거주할 수 없다. 머지않아 아파트 단지의 어린 아이들까지 ‘휴거(휴먼시아 거지)’를 대상화하여 자기 성체의 멸균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만화가와 아이돌과 과학자와 대통령과 요리사와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아이들을 단 하나의 잣대로 서열화하여 커트라인을 설정한다. 이 괴기스러운 능력주의는 우리 아이 인생

에 밥풀때기는커녕 고춧가루 하나라도 묻을까 전전긍긍할 것이다. 고통과 혐오의 가능성을 삶에서 추방하라, 그렇게 90년대의 지상명령은 아파트로 가시화되면서 한국사회를 지배했다.


## 87년 이후의 위생과 멸균의 시민사회 서열화된 중산층, 괴기스러운 능력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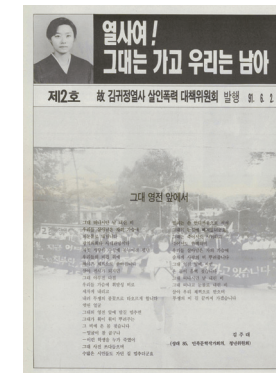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예시된 87년 이후의 위생과 멸균의 시민사회는 불행하게도 이렇게 현실화되었다. 87년 민주항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부의 힘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자.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그 거부의 힘은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그 폭력의 거부는 고통과 혐오의 거부로 전이된 듯하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의지는 그렇게 살게 되면 어찌지 라는 불안과 강박으로 탈바꿈했다. 김소진의 슬픈 예감은 슬프게도 적중했다. 여전히 밥풀때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고통과 혐오의 가능성 자체로 한국사회를 배회한다.

모든 이들이 나서서 배회하는 밥풀때기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추방하는 데에 열을 올린다. 인권의 이름으로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작금의 상황이 전형적이다.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페미니즘 공격은 결국 인권이란 텅 빈 구호일 뿐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인권은 억압받는 곳에서 발화되며, 하나하나의 억압은 환원 불가능한 독특성을 갖는다.

즉 모두의 인권은 하나하나 독특한 맥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권으로부터 고유한 힘을 뺏는 고약한 수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두의 인권은 그렇게 인권을 무력화한다. 멸균과 위생으로 동질화된 일상이 저마다의 일상을 불가능하게 하듯 말이다. 그래서 묻는다. 아직도 거부할 힘이 남아 있을까? 멸균된 위생적인 온실 속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과 곱디고운 손발로? 



소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배경이 된 김귀정 열사 사망사건

# YWCA역사관 '이제'를 만나다



YWCA역사관 '이제' 전시실 내부 전경



차경애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이제'해설가

올해 4월 21일로 창립97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연합회는 3년 후에 맞이할 창립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YWCA가 걸어온 역사를 정리, 연합회 회관 3층에 '이제'라는 YWCA역사관을 마련하고 4월 25일 본격적인 전시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연합회 실무자로 30년, 자원봉사자로 22년 총 52년의 반세기를 YWCA와 함께 한 내가, 처음 문을 연 역사관의 해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쓰임 받게 된 것이 그 어느 자원활동보다도 더 값진 일이라 생각되어 감사를 넘어 감개가 무량하다.

한국YWCA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3년 후인 1922년에 탄생했다. 그 당시 여성은 집에서만 일하는 '식모'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먼저 깨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한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 세 명의 선각자들이 YWCA를 창설한 후 조국의 독립과 여성해방을 위한 일을 시작했고, 이러한 선배들의 의로운 행동이 오늘까지 이어져 97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역사관은 20여 평의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했던 Y활동을 일일이 전시하기 어려워 20년 단위로 역사를 끊어서 그 시대에 맞는 제목을 정하고 주요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지면관계상 전시관에 있는 사진을 자세히 소개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럼 역사전시관 '이제'로 가보자.

## 왜 '이제'인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97년 동안 많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던 YWCA가 선배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Y의 존재이유와 해야 할 과제, 그리고 새로운 Y를 꿈꿀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관 이름을 '이제'로 정했다.

## 시대별 사진 전시

### 1. 햇불을 든다(1922-1940년)

일제 암흑기 시대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햇불을 든' 기독교 여성들로, 여자기독교청년회 창립 발기대회, 조훈폐지와 공창폐지운동, 조선여성노동야학원, 최용신씨의 독립운동으로서의 농촌계몽운동을 전시했다.

### 2. 손을 내밀다(1946-1960년)

남북분단과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Y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에 힘썼다. 피난지 부산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여성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도왔다. 해방과 함께 재건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Y는 박에스터 선생의 도움으로 도약적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 여성과 고아를 위한 구호사업, 1947년 한국Y 고문으로 파견돼 오늘의 한국Y 기초를 세운 박에스터 선생, 연합회 실무자를 위한 국제훈련 사진, 혼인신고운동 포스터 등이 전시되어 있다.

### 3. 스스로 서다(1961-1980년)

1960년대부터 근로여성, 저소득층 여성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여성인권보호운동시대로, 억압 속에 있던 여성들의 자립을 도운 사진, 직업교육의 시작인 서울Y 소녀의집, 파출부 지원자들의 시험, 여성들의 근로조건 개선위한 버스여차장 교육, 가족법개정운동 강연회, 노동조합 간부 교육, 1968년 한국Y연합회 회관 기공식 사진을 전시했다.

### 4. 우리를 보다(1981-2000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를 넘어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다. 인권운동으로 발전시킨 소비자운동,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 운영,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게 행해진 고문과 최루탄 방지를 위한 운동, 초교 파운동에 참여한 남북한 인간띠 잇기,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1996년에 시작한 분유보내기운동, 세계YWCA 100주년 기념 YWCA세계대회, 전국에서 펼친 '아나바다'운동 사진을 전시했다.

### 5. 함께 걷다(2001-2010년)

국가 간은 물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활동전개의 시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호주제 폐지운동, 생명사랑 공동체운동,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의식을 위한 청소년 금융인성교육, 여성 지도력 발굴을 위한 YWCA여성지도자상 시상,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한하늘 한땅' 다문화운동 사진을 전시했다.

### 6. 새 길을 가다(2011-2019년)

YWCA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성평등운동, 탈핵생명운동, 창립 95주년 기념예배를 통한 '고백(Go 100)', 앞으로 이루어야 할 평화통일운동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진을 전시했다.

## 전시 유물

- 제1차 발기회의록(1922.3.27)
- 청소년을 위한 Y-틴 클럽 설명서(1953)
- 대학생Y 성경공부 교재(1956)
- 혼인신고운동 홍보만화(1959)
- 한국YWCA연합회 사회단체 등록증(1961)
- 1966년에 열린 제1회 전국Y 청년대회 자료집(1966)
- 국제사회에 한국Y소식을 알리기 위한 영문뉴스레터
- 한국YWCA 창립 40주년, 50주년, 60주년 기념우표 기념품
- 한국YWCA 뱃지
- 한국YWCA에서 사용한 오래된 직인
- 여성기능대회 메달(1994)
- 세계YWCA 100주년 세계대회 기념품(1995)
- 아시아지역 회원YWCA로부터 받은 기념품
- 한국YWCA 50년사, 80년사
- 1950년대 월간<한국YWCA>
- 한국YWCA 정론지 <여성> 1~6호
- YWCA 여성평화순례 기념 뱃지

# 우리의 이야기 '기생충', 전 세계가 공감한 까닭 '기생충'이 보여주는 보편화된 자본세상의 풍경

정덕현

YWCA 좋은TV프로그램상 심사위원, 대중문화평론가



## 영화 <기생충>

감독: 봉준호  
2019.05.30. 개봉 131분

### <기생충>,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의 이야기

제 72회 칸영화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황금종려상을 수여했다. 마지막까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등 화려한 배우들이 포진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경쟁을 벌였지만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봉 전부터 해외 평단의 반응들은 열광적이었다. 그래서 <기생충>은 어딘가 글로벌하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리라 여겨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개봉한 <기생충>이 너무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차리는 건 첫 장면 단 1초면 충분했다.

기택(송강호 분)네 가족의 반지하집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풍경. 그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익숙한 장면이었다. 바깥을 보던 카메라가 안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런 익숙함은 하나의 공감대로 바뀐다. 윗집의 와이파이를 끌어다 쓰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집안 곳곳을 다니는 장면이나 마치 제단처럼 높게 올려져 있는 변기의 모습이 그렇다. 어두침침한 공간에서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심지어 그 곳에서 온몸에 물어날 반지하의 '냄새'까지 고스란히 느껴진다.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반지하의 시선으로 관객들을 몰입시킨 후, 이들 가족이 햇살이 쏟아지는 지상의 박사장(이선균 분)네 으리으리한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반지하와 지상은 그래서 공간적으로 계급을 자연스럽게 상징해내고,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급적 특징 또한 고스란히 담아낸다. IT기업의 성공한 박사가 상류계급이라면, 사업을 하다 실패해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기택네 가족은 하층 계급이다. 기택네 가족의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우와 기정은 입시에서도 실패해 가족 전체가 백수다. 그래서 이들 가족전체가 어떤 기회를 통해 박사장네 집으로 속속 들어가게 되는 과정은 <기생충>이라는 제목처럼 하층 계급이 상류계급에 기생하며 사는 우리네 삶의 풍경을 떠올린다. 게다가 계급의 '선'을 넘는 일이 '고액과외'를 통해서라는 사실은, 우리네 사회의 유일한 신분상승의 길이 입시나 고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 수상 후 칸 심사위원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BBC코리아

시 같은 것이었다는 걸 상기시킨다. <기생충>은 이토록 너무나 적나라한 계급적 풍경의 우리이야기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공감한 건

우리의 현실을 담아낸 이 작품을 해외에서도 열광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봉준호 감독은 흔치 않게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가진 감독이다. <살인의 추억>은 스릴러 장르로는 쉽지 않은 525만 관객을 동원했고, <괴물>은 역시 흥행이 어려운 괴수물 장르로 1천만 관객을 넘어섰다. 불편한 모성애를 다룬 스릴러 <마더>는 290만 관객을 동원했고, 할리우드 도전작으로 SF액션극이었던 <설국열차>는 930만 관객을 기록했다. 단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쉽지 않은 장르들을 비틀어 작품성과 함께 흥행을 가져간 감독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일련의 작품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우리네 특수한 상황들과 정서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살인의 추억>이 군부 독재 시절의 살풍경한 시대정서를 담고 있다면, <괴물>은 '재난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콘트롤 타워 부재의 면면을 꼬집었고, <마더>는 압축성장 이면에 담겨진 엇나간 핏줄 사회의 그림자를 그려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우리네 현실의 문제에서 특히 주목하는 건 '자본세상의 풍경'이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콘텐츠 형태로 형상화된 작품이 <설국열차>였다.

해외에서도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을 담아낸 <기생충>이 커다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는 건 자본세상의 풍경

이 국적을 뛰어넘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데 있다. 그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기생할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런 계급적 구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봉준호 감독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주제는 그래서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의 문제로 등장하지만, 글로벌하게 공감하게 되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된다.

### 수직적 세계가 한 자리에 만날 때의 파열음

자본에 관한 인문서들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계급의 문제는 사변적이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이 특별하다 여겨지는 건 이런 사변적인 생각들을 영상언어로 축조해 내는데 탁월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시각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놀랍도록 디테일하게 압축해낸다.

<기생충>에서 지하와 지상이라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 그 선은 넘어설 수 없는 선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우리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선을 넘는 일들이 생겨난다. 특히 반지하에 사는 이들은 선을 어떻게든 넘어가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상에 살아가는 이들은 반지하의 삶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한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어딘가 어두운 곳에 존재하긴 하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없는 존재로 치부되는 이들이 바로 반지하 혹은 지하의 삶이라는 것.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에서 이 지상과 반지하 그리고 지하의 삶을 카메라의 수직적 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노상에서 누군가 놀라운 사건을 벌였을 때 아무런 일도 없던 세계가 실체를 드러내듯이 지상과 반지하 그리고 지하의 삶이 한 공간에 겹쳐져 드러났을 때 생겨나는 파열음을 담아낸다. 세상에 대한 디테일한 통찰력과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려내는 봉준호 감독의 세계. 너무나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도 글로벌하게 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월례아침기도회



6월 월례아침기도회가 6월 13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Y아카데미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숙진 교수(이화여대)가 ‘전쟁과 여성: 말하는 주체와 기억 공동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Y아카데미 위원들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송이 있었다.

돌봄직종담당 실무자 워크숍 및 캠페인



2019년 YWCA 돌봄직종담당 실무자 워크숍이 6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돌봄 노동시장의 변화와 한국YWCA 과제’를 이은영 위원장(연합회 돌봄과살림위원회), ‘플랫폼 시장과 돌봄노동’을 윤지연 기자(월간지 위커즈)가, 조연행 부장(서울Y돌봄과살림)이 ‘돌봄 서비스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둘째 날에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캠페인에 참여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총 30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14~15쪽 참조)

故 이희호 여사 범여성계 추모예배



한국YWCA연합회 초대 총무이자, 여성운동의 큰 선배이신 故 이희호 여사의 범여성계 추모예배가 한국YWCA연합회 주관으로 6월 13일(목) 신촌세브란스장례식장에서 진행되었다. 여성단체 및 여성계 인사들 200여 명이 참석한 추모예배에서 ‘죽음은 없다’는 제목으로 박선희 목사(창천감리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이요식 한일여성친선협회 회장, 이연숙 제 16대 국회의원, 차경애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국YWCA 과제 포럼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는 6월 18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국YWCA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박충구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가 기독교 생명 윤리학적 관점에서 강의하고 기독교여성들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19~23쪽 참조)

사무총장협의회 비상협의체 확대회의



사무총장협의회 비상협의체 확대회의가 6월 20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한국YWCA가 Y정체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9년 핵심과제로 진행하는 ‘부속시설 및 조직 재구조화’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했다. 사무총장협의회 비상협의체는 당면한 사회복지환경과 정책 변화들을 공유하고,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매월 진행하고 있다.

제3차 길 위의 평화포럼



제3차 길 위의 평화포럼이 6월 20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박영순 연합회 실행위원이 진행을 맡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연합회 실행위원)이 ‘북한청년(8090세대)의 생활과 의식’을 주제로 강의했다. 연합회 위원, 회원 YWCA 참가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12~13쪽 참조)

2019년 YWCA역사관 ‘이제’ 해설프로그램



YWCA 본부 및 부속시설 실무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6월부터 YWCA역사관 ‘이제’ 해설프로그램을 시작했다. 6월에는 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시니어Y모임, 회원 YWCA 돌봄담당실무자, ‘길 위의 평화포럼’ 참가자, 어린이집 관장 등이 참여했다. 9월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김은경 연합회 공천위원, 차경애 복지사업단 이사장, 최만자 연합회 위원이 해설을 맡는다.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6월 22일(토)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정식이 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열렸다. 탈핵시민행동(준) 주최로 진행된 출정식에는 동부지역이 중심이 되어 13개 회원 Y에서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75명이 참여, 홍순옥 부산 YWCA 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임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16~17쪽 참조)

## 모금현황

### 북한어린이돕기

(2019. 5. 1 ~ 2019. 5.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2019. 5. 1 ~ 2019. 5.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유탉, 권순복, 권 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곤,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남희숙, 명진숙, 문관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민영희,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경,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은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희, 이주영,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천진, 이행자,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전배자,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장미란,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신,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흥현정, 황홍백	1,795,000
개인기부	정계숙, 정 동, 조임근, 최아이크	140,000
회원YWCA	동해YWCA	1,000,000
협력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230,000
기관 및 단체	르뽀(명동성당점), 농협(명동지점)	9,150
거리 캠페인	북한어린이돕기 거리 캠페인	875,710
	5월 합계	4,049,860
	총액	14,052,257

### YWCA 1922 장학금

(2019. 5. 1 ~ 2019. 5.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기부	강순희, 강윤자, 김복순, 김분한, 김성희, 김희진, 민영희, 박미애, 박솔빈, 박정희, 안종순, 염윤경, 유미란, 윤금수, 이혜숙, 정현숙, 진혜선, 천동희, 최수신, 황미자	240,000
5년 약정 5월분완납 명단	감미순, 강선임, 고영자, 김영숙, 박영숙, 박영순, 박은실, 박현숙, 백혜진, 안경숙, 오은경, 원영희, 유덕순, 이승희, 이애라, 이종경, 이진용, 차혜영, 최종옥, 탁순희, 한미미, 한영수, 황인원	
회원YWCA	대전Y, 사천Y, 진해Y, 천안Y, 청주Y	1,640,000
	5월 모금액	1,880,000
	누계	7,250,940

##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돌봄! YWCA은학의집입니다

은학의집은 YWCA의 정신을 바탕으로 2000년 5월에 개관하여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노인 요양시설 등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어르신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070-4705-4038 / 031-707-8790
-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서비스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목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전문적인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어르신 삶의 터전, 집에서 따뜻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영원한 여성운동가,故이희호 선배님을 추모하며



영원한 여성운동가 故이희호 선배님,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 사랑하는 이희호 여사님, 아니 영원한 우리들의 선배님!!

힘난하고 고단한 길을 앞장서서 걸어왔던 우리들의 선배, 우리들의 동지인 당신께서 이제 평화로운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당신의 영면을 마추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 울고고 힘 있는 목소리와 그 다정한 웃음을 만날 수 없다는 깊은 비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평생 동안 씬없이 헤치며 걸어오신 여성해방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의 길 위에 서서, 다시 우리들은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새롭게 길을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당신을 애도하고 서로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당신은 전도양양한 학자의 길을 마다하고, 억눌리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YWCA 활동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YWCA가 창립된 1922년에 태어나신 선배님은, YWCA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했던 여성들의 각성과 해방,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선배님은 '여자는 알지 못한다'는 강고한 가부장적 편견을 깨려 하였고, 여성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자주적으로 행동하여야 민주국가가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축첩을 반대하는 운동을 조직 하였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인권을 유린당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바꾸려고 열정적인 캠페인도 벌이셨습니다. 임신여금을 당하면서도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가난한 여성들의 삶을 안타까워 하셔서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온갖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YWCA운동으로, 그리고 여러 여성운동 단체들이 힘을 합친 연대운동으로 값진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민주투사 김대중대통령과 함께하며 겪은 선배님의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뜨거워집니다. 선배님은 환갑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선물한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하셨습니다. 고초를 겪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면 함께 덮겠다고 하시던 그 때를 저희들은 잊지 못하니

다. 불의에 맞서 싸워 그 승리를 하나씩 그려야 한다는 그 굳건한 정의의 신념과 뜨거운 신앙은 언제나 우리 YWCA 활동가들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여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면서 신산하고 굴곡진 삶 속에서도 "가짓 없는 성실로써 매일에 충실하자"는 스스로의 원칙을 굳게 지켜오신 이희호 선배님! 당신의 지난한 노력으로 이 땅 여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 앞엔 날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들에 대한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여성들의 힘과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열정을,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그리고 오랫동안 변함없이 보여주시던 YWCA활동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그러하여 저희가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누룩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부디 평안한 하나님의 품 속에서 편히 쉬소서,

### 이희호 여사 약력 ,1922년생

약력	내용
1940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1944	이화여자전문학교 졸업
195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 졸업
1954-1956	미국 램버트대학교(Lambuth College) 사회학과 수학
1958	미국 스카릿대학교(Scarritt College) 사회학과 석사
경력	내용
1944-1945	충남 삼교공립초등학교 부설 여자청년연성소 지도원
1952-1953	여성문제연구원 발기 및 간사
1959-1962	대한YWCA연합회 총무
1961-197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1964-1970	(사)여성문제연구소 회장
1964-1982	대한YWCA연합회 상임위원
1994-1997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
1998-2002	(사)사랑의친구들 명예총재 사회복지법인 전국공동모금회 명예회장
1999-2002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연합회 명예이사장
2000-2002	(재)한국여성재단 명예추진위원장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사)사랑의친구들 고문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창립 30주년 기념 나눔음악회



고양YWCA는 6월 13일(목)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바리톤 김주택과 함께하는 나눔음악회'를 진행했다.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바리톤 김주택의 단독공연, 2부 남성 4중창에 이어 고양YWCA 30주년을 상징하는 회원대표 30인 합동공연을 했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원데이클래스 EM 교육



광명YWCA는 6월 14일(금) 원데이클래스에서 'EM 교육과 EM을 활용한 생활제 만들기'를 진행했다.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환경운동 실천을 위해 마련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는 회원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2019 상반기 이사, 위원, 실무자 워크숍

남양주YWCA는 5월 24일(금)~25일(토)까지 파주 헤이리 원과호에서 2019 상반기 이사, 위원, 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총 30여 명이 참석하여 이이 유적, 자운서원에 둘러 문화해설을 듣고 박물관을 견학했다. 이어 '여성이 만드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영성훈련으로 단



합 겸 역량강화 시간을 가졌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청지기' 교육



부천YWCA는 5월 16일(목) '청지기'(청소년을 지키는 기동대) 교육 및 관련 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찍으면 보인다-청소년보호를 위한 공간 QR코드 부착 및 배포 사업' 진행을 위해 부천 지역 및 위기청소년들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QR코드에 들어갈 유관기관들과 함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남YWCA

이진숙 간사

'다정다감프로젝트'



성남YWCA는 6월 1일(토) 성남YWCA에서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 정(情)을 나누고 다함께 공감(感)'이라는 주제의 '다정다감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엄마들을 위한 집단상담,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를 진행했다. '다정

다감프로젝트'는 엄마와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교육, 체험활동,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운영한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Y-틴, 대학·청년Y 인준식



수원YWCA는 5월 18일(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YWCA 대학·청년Y와 Y-틴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Y-틴, 대학·청년Y 인준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원 대학·청년Y 또바기와 9개 Y-틴 동아리가 인준 받았으며, 작년에 성실하게 활동한 회원 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청소년 진로'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안산YWCA는 5월 31일(금)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사, 위원, 실무자 총 60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님나라 확장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이재호 목사님의 강연이 있었다. 발대식을 통해 회원증모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내 회원 확대를 위해 다짐했다.

안양YWCA

신재화 간사

활동가 중점운동교육

안양YWCA는 5월 28일(화) 안양감리교회에서 '2019 안양YWCA 활동가 YWCA 중점운동교육'을 진행했다. 안양



YWCA 이사, 위원, 강사, 클럽임원진 및 실무자들이 YWCA 중점운동을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YWCA 역할과 활동가 사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4차산업혁명시대의 남북협력과 평화통일'(민경태 여시재연구소 한반도 미래팀장) 특강이 진행됐다.

의정부YWCA

김흥례 부장

'성평등 영화제'



의정부YWCA는 6월 5일(수) 신한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성평등 영화제' 1탄을 진행했다. 마을주민과 함께 '즐거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몸, 생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피의 연대기'를 상영하고 김보람 감독과 공감 토크를 진행했다. 참가자 전원에게 유기농 면생리대를 지급하고 현장에서 SNS 현장 후기를 남긴 참가자에게 상품도 전달했다.

파주YWCA

전혜은 간사

민주시민교육



## 회원YWCA 소식

과주YWCA는 5월 15일(수)부터 10월 15일(화)까지 과주YWCA 교육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나(I)라서, 날아서(fly) Good!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자율적 참여와 활동, 토론 등의 교육방식으로 운영한다. 5월 29일(수)에는 '나를 찾는 미술 여행'으로 자아탐색, 자아인식, 자존감 향상,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둔 수업을 진행했다.

### 하남YWCA

김상미 간사

#### 자선콘서트 참가



하남YWCA 합창단은 5월 26일(일) 하남시문화예술회관에서 '섬김과 나눔의 자선콘서트'에 참가했다. 하남시 장로연합회 주최로 목회자가정, 다문화가정, 탈북민가정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과 기금 마련을 위해 장로찬양단, 예향교회 찬양팀, 소리드림국악찬양단, CTS하남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참가하여 후원의 밤을 진행했다.

## 동부

### 거제YWCA

심은옥 간사

#### 환경교육 인형극



거제YWCA는 6월 4일(화) 아주하나어린이집에서 유아들 8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인형극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지켜요'를 진행했다. 물·전기 아껴쓰기,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쓰레기분리배출, 음식 남기지 않기 등 지구를 지

키는 5가지 방법을 주제로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했다. 거제YWCA는 1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여 곳을 방문하여 환경교육 인형극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해YWCA

배정숙 부장

#### 이사교육



김해YWCA는 5월 23일(목) 준회원Y 감사 후속으로 김해YWCA 이사교육을 실시했다. YWCA 목적문 이해(문상순 협력위원), 이사 역할과 회원증모운동의 중요성(이혜경 협력위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사 역할과 목표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 대구YWCA

김보현 간사

#### 자원순환학교



대구YWCA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4월 30일(화)부터 5월 28일(화)까지 화요일마다 자원순환학교를 진행했다. 이론부터 체험, 현장탐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순환 의미와 방법, 방사능물질 순환과정 등을 교육했다.

### 마산YWCA

한혜경 부장

#### 상반기 이사연수

마산YWCA는 5월 31일(금) 갈모봉 삼림욕장에서 2019년 상반기 이사연수를 실시했다. 경영가이드라인 자가평가 내용을 토대로 마산YWCA 조직운영과 운동전개 등을 논의하며 마산YWCA의 성장과 발전 방안을 강구했다.



### 부산YWCA

김예은 간사

#### 회원모집운동 발대식



부산YWCA는 6월 4일(화) 부산YWCA에서 회원모집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본부와 지부 위원회가 부스를 운영하여 퀴즈와 체험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확·행(소신 있는 확실한 행동)'과 이천진 목사님의 회원모집운동 강의를 진행했다. 회원모집의 의미를 되새기고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 사천YWCA

정희경 간사

#### 소하천 살리기



사천YWCA는 6월 3일(월) '소하천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사천시 정동면 소하천의 오염원 제거활동을 실시했다. 소하천 정화활동 후, 수변 녹지화와 셋강 자정능력을 살리기 위해 EM발효액을 투척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 양산YWCA

정은정 간사

#### 회원증모대회 발대식

양산YWCA는 6월 11일(화) 2019년도 회원증모대회 발대식



을 가졌다.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회원증모운동과 활동가의 자세'(신영희 협력위원)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2019년도 회원증모운동 계획 발표, 5개 대대 대대장의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양산YWCA는 올해 1,200명 회원증모를 목표로 이사, 위원, 실무자가 활발한 회원증모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 울산YWCA

김예린 간사

#### 제37회 창립기념예배



울산YWCA는 6월 3일(월) 제37회 창립기념예배를 드렸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움시다'라는 주제 말씀(이창준 한빛교회 목사)이 있었다. '1922 장학금' 모금,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을 진행해 나눔을 실천했다. 울산YWCA는 'GO 50! 함께가자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진주YWCA

김민경 간사

####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진주YWCA는 6월 11일(화) 2019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사, 클럽임원, 실무자 30여 명이 모여 회원운동

## 회원YWCA 소식

체로서 YWCA 역할을 돌아보고, 분임토의를 통해 적극적인 회원증모운동 실천을 다짐했다.

### 진해YWCA

이재경 부장

#### 일회용품 줄이기 대시민 캠페인



진해YWCA는 6월 9일(토) 중원로타리에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대시민 캠페인 '일회용품 다이어트 성공시대'를 진행했다.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분과와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허성무 창원시장, 구무용 진해구청장이 방문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다짐하는 서명을 했다. 진해시니어클럽, 진해행복증심생협 등 유관기관과 진해YWCA Y-틴 20여 명이 참여해 에코백 나눔과 탈핵 메시지를 전했다.

### 창원YWCA

김진아 간사

#### 의정 모니터링단 양성과정



창원YWCA는 5월 한 달간 '의정모니터링단' 양성과정과 '여성생활정치학교'를 진행했다. 2019년 의정지기단은 하반기까지 활동을 지속하며 창원시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준비성, 책임성, 전문성, 젠더관점 반영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100인의 시민들과 함께 정치토크쇼를 열고 우수 의원, 우수 상임위원회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 통영YWCA

서정란 간사

#### 찾아가는 금융교실

통영YWCA는 5월 29일(수) 도서지역인 통영시 사랑도 사랑초등학교에서 금융교실 '찾아가는 착한기업가 체험' 프



로그램을 진행했다. 통영 시내에서 배를 타고 40여분을 가야하는 곳으로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소비와 소득활동 등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 문해력을 높이고자 했다.

### 포항YWCA

이유정 간사

####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포항YWCA와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는 5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다문화 가정 11가구 40명을 대상으로 엘포리 글램핑장에서 '힐링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 건강한 가족관계와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클래식 작은음악회, 매직공연, 장기자랑, 의사소통향상 게임 등을 통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 복부

### 강릉YWCA

이신애 부장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발대식



강릉YWCA는 6월 17일(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발대식 및 특강을 진행했다. 박금성 관장(영월청소년수련관)

이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강의하고, 계도 활동 방법 등을 공유했다. 교육 후 조별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강릉YWCA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동해YWCA

김보람 간사

#### 이사·위원 연수



동해YWCA는 6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제주도에 이사·위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사·위원 14명은 목적문 강의(연합회 박은실 국장), 서귀포YWCA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가졌다. 서귀포YWCA의 성장 과정을 듣고 운영 교육을 진행했다.

### 서울YWCA

성지희 간사

#### '에너지 사용량 자가 모니터단' 발족



서울YWCA는 5월 15일(수) 서울YWCA에서 '에너지 사용량 자가 모니터단' 발족식을 열었다. 모니터단은 '에너지톡(EnerTalk)'을 설치해 평소 에너지 사용량 대비 5% 감소를 목표로 에너지 절약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에너지톡'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기기로, 가정에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기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속초YWCA

주미란 간사

#### 경력단절여성 호텔리어 양성과정

속초YWCA는 5월 20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속초



YWCA와 영랑호리조트에서 경력단절여성 호텔리어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 강원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으로 이론32시간, 실습8시간 총 40시간동안 호텔리어 서비스 입문, 실무영어, CS교육 객실정비 및 점검, 현장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수료생 8명은 속초YWCA가 지역 호텔과 연계하여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원주YWCA

김민영 간사

####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



원주YWCA는 5월 11일(토) 원주천에서 60여 명의 시민과 함께 'EM으로 살리는 청정강원 원주천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EM흙공을 던지고 원주천 주변 정리를 했다.

### 인천YWCA

이강희 간사

#### 선교유적지 방문



인천YWCA 위원 및 회원 9명은 5월 14일(화) 선교유적지 '강화교산교회'를 방문했다. 인천에 감리교가 들어온 뒤 강화선교가 시작되어 '교산교회'가 세워졌다. 회원들은 강화

## 회원YWCA 소식

지역에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일어났던 3.1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기도하며 평화통일운동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 춘천YWCA

허현주 간사

### 회원무료특강



춘천YWCA는 6월 12일(화) 춘천YWCA에서 '캘리그래피로 꾸민 부채 만들기'를 주제로 회원무료특강을 진행했다. 매월 회원무료특강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서부

### 광양YWCA

이현숙 간사

### '사랑나누기 봉사단'의 나눔실천



광양YWCA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활동 중인 '사랑나누기 봉사단'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가정에 도시락을 준비하여 배달한다. 총 40여 명으로 구성된 '사랑나누기 봉사단'은 광양YWCA 회우로 광양YWCA가 추구하는 생명살림과 나눔을 실천하며 외롭고 소외된 이들의 선한이웃이 되어주고 있다.

### 광주YWCA

손유영 부장

### 오월Y 시민포럼

광주YWCA는 광주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이하여 5월 16일(목) 오월Y 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제 25회째를 맞이한 오월Y 시민포럼에서는 '5.18과 나'를 주제로 김



태종 5.18역사기록관 실장이 광주시민들의 희생정신과 항쟁의 역사에 대해 강연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5.18의 승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함을 재인식했다.

### 남원YWCA

임진아 간사

### 동일임금캠페인



남원YWCA는 5월 31일(금) 남원시의회 앞에서 '동일임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제활동에서 남녀임금격차 등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목포YWCA

곽수현 국장

### 이사·직원연수



목포YWCA는 5월 31일(금)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사·직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진 목사(한양대학교)와 함께 'YWCA 목적문 이해'를 주제로 한 영성훈련을 진행했다. YWCA 목적을 통해 중점운동과 주력사업 이해와 공유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지역 내에서 YWCA의 운동방향을 설정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

다. 또한 YWCA 이사·직원으로서 실천하는 지도자로 지역 사회를 섬길 것을 다짐했다.

###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평화아카데미



서귀포YWCA는 5월 17일(금) 서귀포YWCA에서 '2019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시 지역운영'을 개최했다. 제주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공감>지식으로 지시하지 말고 지혜로 지휘하라'를 주제로 유명만 교수가 강연했고, 6월 4일(화)에 진행된 2강좌에서 '<평화 & 제주자연> 탐험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화산섬 제주'를 주제로 문경수 탐험가가 강연했다.

### 순천YWCA

신현아 주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순천YWCA는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5월 27일(월)부터 6월11일(화)까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신규자과정과 경력자과정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신규자과정은 60시간, 경력자과정은 40시간으로 각각 13명, 6명이 이수했다.

### 여수YWCA

김혜영 간사

### 여수YWCA 합창단 정기 연주회

여수YWCA는 5월 30일(목) 여수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합창단 제19회 정기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인천남성합창단을 초청해 여수YWCA 합창단 단원들과 함께 화합의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했다. 여수YWCA는 1999년 합창단을 창단하여 활발한 연주 활동으로 지역의 문화 성



장을 이뤄가고 있다.

### 익산YWCA

홍진 간사

### 제25회 어린이날 큰잔치 부스



익산YWCA는 5월 4일(토)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5회 익산어린이날큰잔치'에서 부스를 운영했다. EM만들기 부스를 운영해 EM원액으로 활성액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며, 환경제품 EM을 알렸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 여성네트워크포럼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제8회 젠더문화축제 '너목들,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전주YWCA는 5월 23일(목)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9 전북젠더문화축제에 참여해 '너들목,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이야기터를 운영했다. '미투, 그후 1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미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짐을 우려하며 'Me Too'를 넘어 'With You'로 나아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 제주YWCA

윤수경 간사

### 평화아카데미

제주YWCA는 6월 20일(목) 평화아카데미 2강을 열었다.

## 회원YWCA 소식



‘음식과 평화’를 주제로 이종임 요리연구가(연합회 부회장)가 강사로 나섰다. 이날 강연을 통해 ‘음식을 통한 일상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중부

논산YWCA

조아영 간사

####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23일(목)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취업·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유관기관 강사, 교육훈련생, 구직자, 기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9년 6월 개관해 여성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담당해왔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 일·생활 균형 가족체험프로그램



대전YWCA는 5월 25일(토)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일·생활 균형 가족체험프로그램 ‘워라밸 가족하이킹’을 진행했다. 총 40가정(150명)의 직장인 가족이 참가하여 식전공연, 공동체 놀이, 우리가족 가훈만들기 등으로 가족관계 개선의 시간을 마련했다.

세종YWCA

허미정 부장

#### Y-틴 동아리 인준식



세종YWCA는 5월 11일(토) 세종YWCA에서 ‘2019년 세종YWCA Y-틴 동아리 인준식’을 진행했다. 개회예배, 환영사, 인준장 수여, 회원선서 등이 있었다. 이어 축하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Y-틴 정식 동아리로 인준했다. Y-틴 활동을 통해 YWCA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 양성평등활동가 양성과정



제천YWCA는 6월부터 11월까지 충청북도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시민 20여 명 대상 양성평등활동가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성인지 정책, 성평등 운동, 성평등한 지역정책 등의 교육(8회)과 모니터링(3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YWCA

한기연 간사

#### 먹거리 시민 50인 위원회 발족식



청주YWCA는 5월 29일(수) ‘먹거리 시민 50인 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청주YWCA 먹거리 50인 위원단은 매월 1회씩 먹거리 생산지견학, 푸드 강좌, 먹거리 시민 50인 위원회(라운드테이블)를 진행할 예정이다.

## YWCA 미래가치포럼

# 현재에서 미래를 보다

- 1차 포스트휴먼의 시대 | 이종관 교수 (성균관대)
- 2차 자본주의의 페르소나 | 양권석 교수 (성공회대)
- 3차 IT 혁명과 우리의 삶 | 이택광 교수 (경희대)
- 4 워크숍 YWCA와 미래

날짜: 2019년 7월~11월 (첫째 주 목요일)  
장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

주관: 한국 YWCA 연합회

주최: 미디어소통위원회